

서기원의 「마록열전」 연구

-권력과 지식인의 비판 양상을 중심으로

양 철 수

제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마록열전」은 1970년대 초반에 발표한 일종의 풍자소설이다. 풍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면서 또한 군사정권 하에서 검열을 피해 나가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마록열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이 작품에 나타난 풍자의 성격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모호함으로 말미암아 아직 그 의미가 명확히 구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마록열전」의 사건들은 1970년대 초반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해석했을 때, 비로소 작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마록열전」이 비판하려는 것은 당대의 권력과 지식인의 행태이다. 다양한 시공간의 혼합, 비현실적인 사건들은 군사정권 하에서 권력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장치들로 이해할 수 있다. 권력의 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상징적 사건들로 처리되는데, 그 이면에는 삼선 개헌과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이 놓여 있다. 또한 「마록열전」은 권력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태들을 풍자한다. 권력은 역사를 왜곡하고 어용학자를 동원 정부 조치를 선전하고 고문을 자행한다. 이에 반해 지식인들은 권력을 비판하는 역할을 상실한 채, 속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권력에 흡수 되는 모습으로 혹은 체제에 적극 가담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마록열전」에서 풍자는 권력에 대한 비판의 방식이기도 하면서 또한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과 모호함은 구체적인 시대상황과의 관련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나, 과연 독자들에게 얼마나 성공적으로 전달되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서기원의 「마록열전」 연구

- 권력과 지식인의 비판 양상을 중심으로

1. 머리말
2. 당대 권력과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 양상
3. 지식인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서기원(1930~2005)은 1950년대 전후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전후문학이라 할 수 있는 초창기 작품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와 역사에 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작품들을 계속하여 발표하였다. 그는 1955년 동화통신사 기자로 입사하면서 언론계에 몸담는다. 서울신문사 주일특파원, 동화통신사 경제부장을 거쳐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마지막으로 언론계를 떠나 1973년 경제기획원 대변인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한다. 그의 작품 활동도 관직에 들어서면서 공백기를 갖게 되는데 「마록열전(馬鹿列傳)」은 그가 관직에 들어가기 직전 1971년부터 1972년 사이에 발표된 연작소설이다.¹⁾

「마록열전」은 당대 사회를 비판하는 일종의 풍자소설인데 그 형식이 독특하다. 이 소설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1) 「마록열전」은 1편(『현대문학』, 1971. 3), 2편(『월간문학』, 1971. 8), 3편(『문학과지성』, 1971. 12), 4편(『창작과비평』, 1972. 여름), 5편(『문학사상』, 1972. 11) 모두 다섯 편으로 되어있는 연작소설이다. 여기에서는 1988년 문학과비평사에서 간행한 「마록열전」을 텍스트로 삼아 분석하였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지만 「마록열전」에서 썼던 방법의 밑바탕이라 할까, 생각의 알맹이라 할까 그런 것은 상기도 머리 속에 남아 있어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나는 작가와 현실이란 과제를 놓고 볼 때, 이를테면 주제별 문제제기 식의 방법에 전혀 흥미가 없고, 또 지나치게 내공적(內攻的)인 언어유희 같은 것도 공감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는 논설에 맞기면 되는 일이고 후자는 아무래도 태평성대에나 어울리는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이다.²⁾

위의 인용문에서 작가는 「마록열전」에서 보여줬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말하고 있다. 그것은 주제별 문제제기의 방식도 아니고 지나치게 내공적인 언어유희에도 치우치지 않은 방식이다. 작가가 생각하는 적절한 방식은 아마도 풍자인 듯하다.

「마록열전」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이 연작에 사용된 풍자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다소 추상화된 이야기의 전개나 역사적 전망의 부재가 이 연작의 성격을 냉소주의로 간주하기도 하고,³⁾ 역사에의 환멸 또는 정치에의 환멸이 이 소설을 낳게 했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⁴⁾ 또는 작중인물과 현실에 대해 비판적 시선은 드러나나 그 추상성으로 인해 환멸에 근접한다는 평가도 있다.⁵⁾ 이러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마록열전」은 그 의미가 명확히 구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작품 자체에 대한 충실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다. 본문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되는 바이다.

2) 서기원, 「작가 후기」, 『마록열전』, 문학과비평사, 1988, 263쪽.

3) 구재진, 「허무와 환멸 혹은 풍자와 냉소」, 서기원·이법선, 『한국소설 문학대계』 35, 동아출판사, 1995.

4) 성민엽, 「역사에의 환멸과 풍자」, 서기원, 『전야제』, 책세상, 1988.

5) 하태진, 「서기원의 「마록열전」 연작 연구 - 풍자를 통한 복수의 비판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 21호), 2010.

「마룩열전」에서 비판하는 대상은 주로 당대의 권력과 지식인이다. 이 소설을 쓰던 시기는 박정희 정권이 삼선 개헌을 하고 장기 집권체제를 만들기 위해 유신을 준비하던 시기이다. 작가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인 풍자를 이용하여 비판한다.

풍자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부정이나 비판을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⁶⁾ 따라서 풍자는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권력이 행사하는 검열을 피해나갈 수 있는 문학적 기법이 된다. 반면 풍자가 취하는 우회적인 방식이 작품의 주제를 모호하게 만들 수도 있다.⁷⁾

이 글에서는 1970년대 초반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서기원의 연작소설 「마룩열전」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소설이 갖는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당대 권력과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 양상

「마룩열전1」은 ‘마룩’이라는 우매한 인간을 내세워 세상을 풍

6) 김준현, 「반공주의의 내면화와 1960년대 풍자소설의 한 경향—이호철·서기원의 단편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의 정치적 내면화』, 깊은샘, 2007.

7) 구재진은 이 작품의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이 작품을 풍자소설로서 단정하기에도 난점이 뒤따른다. 풍자소설이라면 ‘풍자의 대상’과 ‘풍자의 주체’가 명확해야 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것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비판의 초점 역시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부조리함들이 막연하게 비판되고 있을 뿐이다.”(「허무와 환멸 혹은 풍자와 냉소」, 서기원·이범선, 『한국소설문학대계』 35, 동아출판사, 1995, 611쪽.)

자한 일종의 우의적 풍자소설이다. 마록의 어리석은 행동은 주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과 그 세계에 대한 자신의 인식 사이의 간격에서 발생한다. 이 소설에서 마록이 던지고 서 있는 현실 세계는 정치권력이 작동하는 세계로, 이 소설은 주로 정치와 사회 현상에 대한 풍자로 읽혀진다.

마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면서 이전보다 백성의 삶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사또의 치적엔 실로 볼 만한 바가 있었다. 걸핏하면 길바닥에서 악악거리던 불한당 녀석들을 다스리는 데도 찢찢매던 구관과 좋은 대조가 되었다. 거렁뱅이 동냥하듯 서 있던 서문을 과감히 헐고, 성밖 장터로 통하는 길을 활달하게 닦았으며, 가가호호에 유선방송을 무료로 설치해 주었다. 다른 고을과 교역을 넓혀, 가령 읍내 단 하나 밖에 없는 약국엔, 최신 성병 특효약과 고무제품 등속이 풍성해졌다. 또한 한방의들은 각자 체질에 맞는 보약을 조제해야만 잘 팔린다 하여 사성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⁸⁾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역사적인 특정 시점이 아니라 현재와 과거가 혼재되어 있다. 위 인용문에서는 사또, 구관, 성, 서문과 같은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단어들과 유선방송, 약국, 성병 특효약, 고무제품 등의 현재를 배경으로 하는 단어들이 섞여 있다. 주로 공간이나 제도를 표시하는 단어들이 과거에서 차용한 것이라면 제품이나 문물들은 현재에서 빌려온 것들이다. 이 소설에서 시간적 배경을 비교적 명확히 나타내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마록의 할아버지가 “갑오년 의병 난리 때 수모자의 한 분”이었다는 구절, “6·25 난리 때 아버지 제사를 한 차례” 걸렀다는 구절, 시장에서 산 낚시 제기가 “왜놈들 공출 때 거둬들였던 물건”일 것이라는 구절 등이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

8) 서기원, 『마록열전』, 문학과비평사, 1988, 12쪽.

려하면 이 소설이 풍자하고자 하는 시대는 1970년대 초반 즉 작가가 이 작품을 발표하던 시기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문을 과감히 헐거나 성 밖 장터로 통하는 길을 닦는 것도 근대화와 산업화의 추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불한당 녀석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던 구관과 대조되는 사또 또한 이전 정권과 비교되는 박정희에 대한 비유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주요 서사는 4일장을 3일장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장돌뱅이들이 시위하게 되고, 마록도 그들과 함께 덩달아 끌려가 고문을 당하다가 풀려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4일장이 3일장으로 바뀐 것에 대한 항의와 이로 인한 사건들을 이야기의 테마로 삼은 것인데, 그 내용만 끝이곧대로 본다면 황당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삼일장으로 바꾼 이 사건을 삼선 개헌에 대한 비유로 이해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며칠 동안 바글바글 끓던 공론이 가라앉자, 동문에 방문이 나붙었는데 아주 짝막한 글이었다.

<본관은 폐습에 젖은 4일장을 3일장으로 개혁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읍민들은 3일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상.>

언문으로 토를 달아 마록도 음독(音讀)은 할 수 있었으나, 도통 무슨 소린지 이해할 도리가 없었다. 하기가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것처럼 격조가 높고 철학이 담겨져 있는 간결한 문장을 제대로 소화할 만한 두뇌가 골 안에 있음직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례대로 유선방송이 천하대세(天下大勢)란 시간에 권위자들의 좌담회를 마련해 주었다.

이구동성으로 과감한 공사(公事)라고 칭송한 다음 앞으로의 문제점에 들어갔는데, 서울서도 한 몫 뇌준다는 실학(實學) 교수가 경제적 측면이라 하여, 이웃 고을이 삼일장임에 비추어 이편에서 하루 앞당기게 되면 피차 산물(產物)의 집산에 다소간 영향이 있을 것이나,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무척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그런데 향교(鄕校)에서는 신삼강(新三綱)을 강의한다는 젊은 치는 제물에 들뜬 나머지, 흥분한 어조로 “전근대적인 장은 아예 폐지해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라고 했다가, 며칠 후 전임강사

자리를 자퇴(自退)하고 말았는데, 그쯤 당한 곡절이야 어쨌든 역시 경험 부족이 자초한 불행이었을 것이다.⁹⁾

사또는 중요 사항에 대해 먼저 결정을 하고 공표를 한 후 학자를 동원해 여론을 형성하고 일을 추진한다. 위 인용문은 현안에 대해 어용학자를 동원하는 세태나 혹은 자신의 주장을 과감히 폄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행태를 서술자는 김 사관을 통해서 '왕조시대'로 회귀했다고 비판한다.

권력은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거나 역사를 왜곡시킨다. 억울하게 관에 끌려간 마록은 유연비어를 퍼뜨리고 읍민을 선동하였다는 죄목으로 고문을 당하게 된다. 결국 그가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는 김 사관이 이방의 조부를 장렬하게 전사한 의병으로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록은 김 사관이 자신을 위해 위증한 것으로 잘못 알고, 그를 고맙게 여긴다. 이 소설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 마침 유선방송이 뉴스 해설을 시작했다. 갑오의병의 새 사실(史實)에 관한 김 아무개 선생의 해설이라는 것이었다. 김 아무개가 누구더라 어디서 들던 이름인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스피커가 원체 낡아 김사관의 음성으로는 들리지가 않았다.

한 십여 분 동안, 다 아는 얘기를 횡설수설하더니,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우리 고을 이방어른의 조부 장께서는 서장대(西將臺) 위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새로운 사료(史料)를 발견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읍지(邑誌) 편찬에 즈음하여 우리의 주체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¹⁰⁾

마록과 대립하게 되는 인물은 이방이다. 물론 그 둘의 관계는

9) 앞의 책, 25쪽.

10) 앞의 책, 31쪽.

대등한 관계는 아니다. 마룩은 평범한 읍민에 불과하지만 이방은 실세 권력이다. 그 둘은 자신들의 조상의 행위와, 그것의 왜곡에 대한 문제로 대립된다. 마룩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장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룩은 이 수구 앞 도랑을 건널 적마다 생시엔 뵙지 못한 할아버지를 생각하곤 했다. 일제시대 징용으로 북해도엔가 끌려간 채 소식이 끊어진 아버지로부터, 갑오년 의병난리 때 수모자의 한 분이었던 할아버지께서 왜군 토벌대의 포위망 속을 용전 분투, 장렬하게 전사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었다.

그런데 세상에 알려진 사실(史實)은 그게 아니고, 그 수컷구멍으로 도망쳐 나오다가 붙잡혀 동문 앞에서 총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실상 그런데 흥미를 갖는 사람도 있을 성싶지가 않지만.¹¹⁾

마룩의 할아버지 행위는 가족사로서 자손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공적인 역사와는 다르다. 그리고 그 행위는 비교적 우습게 묘사된다. 이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서 보여주듯이 공적인 역사는 권력에 의해 왜곡된 역사이다.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마룩의 행위는 독자들로 하여금 웃음을 준다. 그러나 이 소설은 희극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 현실권력은 실제로 마룩에게 볼 수 있듯이 고문도 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기 때문이다.

「마룩열전2」는 '마룩삼'이라는 주인공이 6·25를 거치면서 통역장교로 일하게 되고 그 와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회화적으로 다룬 소설이다. 이 소설의 재미는 마룩삼이 벌이는 우스운 행동에 있는데, 그의 행위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의식을 감지할 수 있다.¹²⁾ 반공주의는 정권유지의 지배적 이

11) 앞의 책, 13쪽.

12) 김준현은 서기원의 작품 「아리랑」, 「이유」, 「오산」에 나타나고 있는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격을 분석한 바 있다.(앞의 논문, 2007)

데올로기인 만큼 이것을 다루는 방식은 조심스럽고 우회적이다. 이 소설의 첫 대목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난을 해야 할 사람과 피난을 안 해도 괜찮을 사람으로 확연하게 갈라질 수 있다고 믿었던 서울 시민은 아주 적었을 것이다. 어느 사립대학 정치과에 다니는 마룩삼(馬鹿三)도 그 아주 적은 부류 속에 마땅히 들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 건 공산주의라는 것이 그저 싫다는 한 가지의 사유밖엔 없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공산주의가 싫은 까닭도 학생동맹하던 치들 노는 꼴이 애초부터 마음에 안 든 때문이었고, 무슨 독서회를 갖는다, 씨클을 만든다 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거나 해괴한 좌익 용어를 남발하고 핏대를 올리는 일종의 유행(流行)이 역겨운 정도였다.¹³⁾

이 소설의 첫 문장은 이상하다. 전쟁이 났으면 당연히 이편과 저편으로 나누어지고, 따라서 피난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생사의 중요한 판단의 문제이다. 그러나 첫 문장은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문장은 그 다음의 문장에서 마룩삼이 전쟁 이전부터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명확히 가지고 있는 인물로 돋보이게 하려는 서술자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의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의 동기는 우습게도 이 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노는 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들의 행동이 역겨워서이다. 서술자는 처음부터 마룩삼을 반공주의자로 또한 우순 인물로 묘사함으로써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의 검열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매한 마룩삼은 전쟁 중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서울에 진입한 인민군을 보게 된다. 그의 시선에 비친 북한의 병사는 좌익 운동을 하던 이들과는 달리 인상 좋은 모습을 하고 있다.

용산 우체국 광장에서 남쪽으로 포를 겨냥하고 있는 탱크 둘레

13) 서기원, 앞의 책, 32쪽.

를 동네 조무래기들이 떼지어 몰려 있는데, 무기에 대한 동경심이란 어른 애 가릴 것 없이 사람의 본능과 같은 것인 듯했다. 구경판에 한몫 든 마룩삼의 눈엔 탱크 뚜껑 위에 걸터앉은 병사의 얼굴이, 좌익운동하던 치들과는 생판 다르게 비쳤다. 훨씬 인상 좋게 말이다. 조무래기들이 뭐라고 질문하니, 그 녀석은 약간 수줍어하면서 으스스대고 있었다. 전쟁치고는 참 이상한 전쟁이었다.¹⁴⁾

마룩삼의 눈에 비친 인민군의 모습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르다. 「마룩열전1」에는 어린애들이 북한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대화가 담겨있는데, 예를 들어 “니북에 사진기가 있는 줄 아니?”라든지 “아냐. 니북사람은 우리말 모른대.” 등의 대화를 보면 북한은 못사는 나라로 혹은 우리와 전혀 다른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마룩삼이 보는 인민군에 대한 우순 인식은 기존의 반공주의가 가지고 있는 엄숙한 분위기를 잠재워 버리고 북한군이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룩삼은 반공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라는 이념과 북한 사람을 구별한다. 한국전쟁은 공산주의 귀신과의 전쟁이지 북한 사람과의 전쟁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룩삼에게 있어서 북한은 적이기는 하지만 또한 그 이전에 같은 동족이라는 인식이 있다. 다음은 마룩삼이 포로를 심문하는 장면이다.

첫번째 걸린 놈은 머리통이 유난히 단단하게 생긴 스물 셋 가량의 하사관이었는데, 껍데기만 빨간 사과가 아닌 진짜 토마토인 모양으로, “날 죽여라 죽여.”하며 악을 썼다. 이런 독종을 설득해서 쓸만한 정보를 캐내자니 앞길이 캄캄 절벽 같았다. 보통 방법으론 어렵도 없을 것이라 단정하고 곰곰 생각 끝에 “네가 미군한테 잡히긴 했지만, 그 사람네들은 너하고 싸우러 온 것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야. 공산주의란 귀신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네가 죽긴 왜 죽어.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아는 대로 나한테 말하라구.” 우정(友情)이 넘치는 정감으로 타일렀던 것이

14) 앞의 책, 33쪽.

다. (…)

결국 첫번째 놈은 다른 심문관에게 넘겼는데 다음 차례에서 정통으로 걸리고 말았다. 이번엔 늙수구레한 인민군 대위였다. 억지웃음을 비굴하게 지으며 한술 더 뜨다시피 술술 붙어 놓는 것이었다. 창자가 뒤틀린 마중위는 참다 못해 발길질을 시작했다. “개자식! 이놈아 너도 조선사람이라면 좀 체면을 차려라. 코쟁이 앞에서 창피하지 않아, 영! 이 쓸개 빠진 놈아.”¹⁵⁾

마록삼은 포로수용소 소장으로 발령을 받게 된다. 거기서 그는 인민군 포로로 잡혀있는 이전부터 친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밤중에 몰래 풀어주게 된다.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 일로 마록삼이 대동강 철교를 팬티만 입고 건너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마록삼이 전쟁 중에 보여주었던 북한군에 대한 인식 또는 포로를 심문하는 과정이나 포로를 풀어 주는 행위 등은 전쟁 중에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마록삼의 우매한 성격으로 회화화 된다. 그러나 마록삼의 우순 행위에는 일관된 흐름이 있는데 그것은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다. 이 소설의 독해를 전쟁의 맥락이 아니라, 이 글을 쓴 1970년대 초반을 염두에 둔다면 이 소설은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지식인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양상

「마록열전4」는 암행어사인 마명민이 태평군의 민정을 상감에게 오린 서계(書啓)인데, 주로 언론인, 교수, 문인들과 같은 지식인의 행태를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지식인에 대한 비판은 권력의 중심부에 대한 비판보다는 비교적 자유로워서 직접적

15) 앞의 책, 40-41쪽.

으로 묘사된다. 태평군에 등장하는 지식인들은 지식인의 중요한 역할인 권력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속물적인 지식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뭔가 열심히들 쓰기는 쓰고 있었으나 연구논문은 별로 없는 반면 신문 잡지에 기고할 원고가 태반이라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터입니다. 고료가 너무 싸서 이제 그만 써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틈만 나면 책상머리에 붙어앉아 신트림을 연발하며 지성스레 끄적거리고 있음을 볼 때 오죽 돈이 아쉬우면 저러라 싶어 불쌍한 심정이 절로 드는 것이었습니다. 신의 정상적인 두뇌로 써는 그들이 결코 밀지는 장사를 할 멍텅구리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이며 따라서 고료 수입 외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그 정체는 아직 붙잡지 못하고 있는 바이올시다.(…)

이런 자들의 글이 왜 팔리는고 하면 요컨대 신문·잡지의 기자들이 약은 탓인 것입니다. 좀 꺼림칙하다 싶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재간을 지닌 학자들에게 청부 대행(請負代行)시켜 놓고는 뒤켠에 앉아 야릇한 드릴을 맛보면서 표현이 좀 생경한 대목일랑 숨쉴있게 주물로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젠 독자들도 <인포텐트>가 다 된 사내들에게 손톱만치의 기대도 걸지를 않았습시다만 그렇다고 궁합이 맞기 어려운 외국 사내들과 함부로 놀아날 수도 없는 처지고 보면 기왕지사 모조리 불감증에 걸리는 것이 속 편할 노릇일 듯도 하옵니다.¹⁶⁾

대학교수나 언론인 모두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은 제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만의 이익과 안전만을 생각한다. 대학교수는 언론을 이용하고, 언론은 민감한 주제에 적당히 대학교수를 이용하면서 지식인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을 외면한다. 서술자는 이러한 지식인을 '인포테트'가 다 된 사내라며 더 이상 생산적인 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마록열전3」은 시대적 배경이 조선시대로서 청백리의 후손인 '마준'이 등장한다. 마준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청백리의 명에

16) 앞의 책, 86-87쪽.

를 버리고 세도가에게 아부하여 벼슬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마침내 마준이 벼슬을 얻게 될 순간,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던 재야 유생인 마준의 친구 최치열이 자신의 머리를 도끼로 찍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김 대감은 최치열을 충신이라고 칭찬하며, 마준에게 주려했던 정읍 현감 자리를 최치열에게 준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마준은 매번 과거시험에 실패하고서는 마땅히 할 일이 없는 현실에서 무능력한 인물로 묘사된다. 반면 그의 유생 동료라 할 수 있는 최치열과 박진사는 현재의 권력인 노론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물들이다. 그러던 그들은 광화문 앞에서 상감께 직소하기 위해 모이고 최치열은 광화문을 부수려던 도끼로 자신의 이마를 찍게 된다. 그 모습을 보던 김 대감은 다음과 같이 명한다.

“충신이로군 저자의 성명을 알아 오너라.”
 보고를 받은 김대감은,
 “최가가 죽지 않았다면, 정읍 현감을 제수한다고 전해라. 과연 충신이라고.”
 그런 다음,
 “금위대장, 도끼로 제 이마를 까는 자들이라 염려할 것 없소. 저녁 무렵해서 술과 고기를 후히 대접하여 해산시키도록 하오.”
 여유작작하게 말하고는, 그 특색 있는 웃음 소리를 높이 울리는 것이었다. 곁에서는 안경을 낀 사관이 열심히 붓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¹⁷⁾

「마록열전」에 등장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인 지식인들은 결국 현실 권력에 흡수되는 모습을 보인다. 위의 최치열뿐만 아니라 「마록열전1」에 등장하는 김 사관인 경우도 그러하다. 이방의 할아버지의 친일 행각을 알아냈던 김 사관도 결국 역사를 왜곡 날조 선전하는 인물로 변모한다.

17) 앞의 책, 73-74쪽.

마준이라는 인물은 청백리 가문의 후손인데, 과거에 실패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실속은 없고 명분만을 쫓는 우매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러한 마준도 현실에서 하나의 조그만 권력이라도 차지하려 한다.

일신상의 고민을 숨김없이 털어놓자, 최치열은,

“이 사람아,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가 노론 정권에 빌붙어서 영화를 누릴 마음만 먹었다면, 아 헉헉한 청백리의 종손이요, 인물로 보나 학식으로 보나 못할 것이 무엇 있었겠나. 조그만 더 참으세, 굶어서 말라죽을 지경이야 되겠나. 정 곤란하면 우리들이 조금씩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런 마음 먹지 말아.”

다짜고짜로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었다. 조언이라기보다 움짱달짝 못하게 덮어씌우는 것이었다.

“……아버지 말씀도, 감투를 얻어쓰고, 협작을 해먹으라는 뜻은 아니야. 녹봉을 받아 정직하게 살아 나가면서 목민(牧民)에 힘을 쓰는 것도 선비의 길이 아니겠나?”

마준은, 친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그런지 좀 섭섭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

최치열의 충고란 것도 그렇다.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 선비의 지조를 지키라고 식은 죽 먹듯 지껄이는 것이다. 정 사정이 곤란해지면 친구들이 도와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무얼 어떻게 하겠단 말인지, 그것도 무책임한 방언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대궐에서 부르심이 내리면 황망히 의관을 정제하고 달려 나갈 위인들이 아니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¹⁸⁾

마준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인의 내면의 모습을 구성해 볼 수 있다. 마준은 청백리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인물로 그려진다. 마준이 우매하게 보이는 것은 그 자신이 실제로 권력을 잡지 못하고 과거에 매번 실패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청백리라는 지식인 나름의 명분을 내세

18) 앞의 책, 60-62쪽.

운다. 그러나 청백리는 점차 시대적으로 사라져가는 더 이상 타인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가치는 아니다. 그가 아버지의 유언을 빌미로 쉽게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던 청백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청백리가 진정 자신의 가치로 내면화되어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준은 최치열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 못한다. 최치열이 사회적으로 비판적인 상소를 하기도 하고 시위도 하지만 그의 행동은 쉽게 권력으로 흡수된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마준의 욕망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최치열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의 세속적 욕망을 마준의 우매한 행동 속에서 쉽게 읽어낼 수 있다.

「마록열전」은 일제강점기에서 일본순사의 밀정인 '마영'의 행위를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에 중추원 참의를 지내고 있는 김 참의는 사상에 물든 자신의 아들을 마영에게 감시하게 한다. 아들이 사상운동을 하는 증거를 잡게 되자 김 참의는 아들을 광에 가둔다. 아들의 문제에 대해 마영의 조언을 구한 김 참의는 아들의 거짓 장례를 치르고 모든 문제를 숨기게 된다.

「마록열전」의 중심인물은 김 참의와 마영이다. 시대적인 배경은 일제강점기이고 김 참의는 그 시대 속에서 권력을 누리는 인물로, 마영은 일본 순사의 꼬나풀 노릇을 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두 인물 모두 그 시대와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완전히 체제에 순응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김 참의가 마영에게 말한다.

“허기야 군사를 일으켜 상감께 보은하려고 나섰던 사람들도 더러는 없지 않았지만, 그건 모두 시류(時流)를 모르는 만용지도배라. 거기다 대면 자네 어른신께선 스스로 분수를 아시고, 절개를 지키셨으니 본의는 아니로되 총독부의 녹(祿)을 먹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과는 다르지. 암 다르다마다.”¹⁹⁾

19) 앞의 책, 100쪽.

이 소설의 주요 이야기는 김 참의와 자식 간의 갈등 그리고 이를 둘러싼 마영의 약삭빠른 행위 등이다. 체제 순응적인 인물로 전개되는 이 소설의 서사는 결국 식민지 시대의 갈등 상황이 권력과 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자식과 부모 간의 문제로 변형되어 버린다. 마영이 아들을 얹혀놓고 자신을 항변한다.

“얹거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하자니 힘이 든다마는 그런 소릴 들으면 넌 이렇게 말해줘라. 우리 아버지가 일인들하고 친해서, 경찰서에 더러 출입도 하지만 조선 사람 해치는 일은 안 하신다. 그래도 막무가내라면, 이놈들아 조선 사람치고 일인한테 빌붙어 먹지 않는 놈 봤느냐! 총독부 관리를 위시하여 순경 훈도(訓導) 면서기 심지어 전차 차장까지 일본 사람 밑에서 밥빌어먹지 않는 자가 있더냐! 이놈들, 너희들 애비는 몽땅 만석꾼이더냐. 만석꾼도 그렇지, 경찰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사상범을 취체하고 있으니까 평평 거리고 사는 거지, 그래 내 말이 틀렸냐!”²⁰⁾

김 참의는 마영의 충고를 받아들여 사상운동을 하는 자식 태열이를 가짜로 장사 지내고 다른 곳으로 몰래 보낸다. 결국 두 사람의 단합으로 태열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다.

이 소설은 태열의 주장이나 행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체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인물들의 행태를 보여주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데에 이 소설의 관심이 귀착되어 있다.

4. 맺음말

「마룩열전」은 모두 다섯 편의 연작 소설인데 각 편마다 독특한 형식과 주제로 관심을 갖게 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일종의 풍자소설인데, 풍자라는 방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면서

20) 앞의 책, 105-106쪽.

또한 그것의 우회적인 성격은 군사정권 하에서 검열을 피해 나가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마록열전」의 사건들은 이 소설이 발표되던 1970년대 초반의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해석됐을 때, 비로소 작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

「마록열전」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당대의 권력과 지식인의 행태이다. 다양한 시공간의 혼합, 비현실적인 사건들은 군사정권 하에서 권력의 검열을 피해 나가기 위한 장치들로 이해할 수 있다. 권력의 유지와 관련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 만큼 상징적 사건들로 처리되는데, 그 이면에는 삼선 개헌과 반공주의에 대한 비판이 놓여 있다. 반면, 지식인에 대한 비판은 비교적 자유스러워서 직접적으로 묘사된다.

「마록열전」은 권력이 자기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태들을 풍자한다. 권력은 역사를 왜곡하고 어용학자를 동원 정부 조치를 선전하고 고문을 자행한다. 이에 반해 지식인들은 권력을 비판하는 역할을 상실한 채, 속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권력에 흡수 되는 모습으로 혹은 체제에 적극 가담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풍자는 대상에 대해 직접적인 방식이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비판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서술자의 의도가 독자들에게 얼마만큼이나 성공적으로 전달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술자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이에 대한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마록열전, 서기원, 풍자, 검열, 권력, 지식인

■ 참고문헌

- 강정훈, 「서기원 소설 연구- 후기소설을 중심으로」,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구재진, 「허무와 환멸 혹은 풍자와 냉소」, 서기원·이범선, 『한국소설문학대계』 35, 동아출판사, 1995.
- 김준현, 「반공주의의 내면화와 1960년대 풍자소설의 한 경향 -이호철·서기원의 단편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의 정치적 내면화』, 깊은샘, 2007.
- 서기원, 『마록열전』, 문학과비평사, 1988.
- 성민엽, 「역사에의 환멸과 풍자」, 서기원 『전야제』, 책세상, 1988.
- 송재영, 「해학과 풍자」, 『마록열전』, 문학과비평사, 1988.
- 조정래·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1991.
- 하태진, 「서기원의 「마록열전」, 연작 연구- 풍자를 통한 복수의 비관을 중심으로」,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 21호), 2010.
- 로널드 폴슨, 김옥수 옮김, 『풍자문학론』, 지평, 1992.

〈ABSTRACT〉

A study on Seo Gi-won's *Marokyeoljeon*

-Focusing on criticism against power and intellects-

Yang, Cheol-su

Marokyeoljeon is a series of novels consisting of five episodes, and each episode has a unique form and theme that stimulate readers' interest. They are a kind of satirical novels. On the one hand, satire is a way of viewing the world and, on the other hand, its indirect expression provides a way to avoid censorship under the military regime. Accordingly, only when episodes in *Marokyeoljeon* are interpreted in connection to historical situations in the early 1970s when the novels were published, the writer's intention is revealed clearly.

What *Marokyeoljeon* is to criticize is the power and intellects' behavior in those days. The mixture of various times and spaces and unrealistic incidents can be understood as devices for avoiding censorship under the military regime. While sensitive part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power are depicted with symbolic events, criticism against intellects, which was tolerated relatively, is described more directly.

Marokyeoljeon satirizes all behaviors that power does in order to maintain its position. Power distorts history, propagates the government's policies by mobilizing government controlled scholars, and tortures opponents. In contrast, intellects lose their role of

criticizing power, and appear to be snobbish, be absorbed into power, or be involved actively in the regime.

Satire criticizes an object by an indirect way rather than by a direct way. Particularly when it is used as a means to avoid censorship, the question is how much and successfully the writer's intention is delivered to the readers. In this sense, it is meaningful to examine conditions for the accurate communication of the writer's intention, and further discussions may be necessary on this issue.

Key words : Marokyeoljeon, Seo Gi won, satire, censorship, power, intellects